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9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방공동체 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오늘 오후 3시부터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연령별 교사 전체 모임이 28일(일) 1시 30분에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교단 총회가 23일(화)~25일(목)까지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최창수 · 정혜옥 집사 가정 (감사)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한호남 집사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38 호

2025년 9월 2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익숙한 것, 그 속에 담긴 이야기

지난 여름에 시간을 내서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은퇴 후 농사를 짓고 계시기에 아침에 참깨를 베고 말리는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모교회라 할 수 있는 고향 교회에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옛 예배당을 대신 할 새 예배당과 사택을 함께 짓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 맹지로 노후화된 주택을 다시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길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옆 땅인 게이트볼장을 교회에서 구입하게 되면서 예배당과 사택을 함께 하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교회이기에 재정상태가 충분하지 않아서 교회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철거를 하고 뼈대를 살려서 새롭게 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모, 삼촌으로 불렸던 교회 집사님들과 은퇴한 아버지,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함께 작업을 도와 건축을 하고 계셨습니다. 옛 교회 건물을 세울 때도 시골교회라 재정이 없어서 여럿 돕는 손길로 지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모아온 헌금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교회를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땅 구입과 건축을 하는데 있어 재정은 많지 않으니,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생활 중 시간을 내서 교회를 짓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직접 일을 돕는 분도 있었고,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여 새참을 준비해 주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건축비의 반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되기에 시골 교회 사정을 잘 아시는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며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 책임을 맡아서 교회 집사님들과 목사님, 은퇴한 아버지와 일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30여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는 피해다녔다고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는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힘들기보다는 즐겁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농담도 하고 힘든 것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강대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상 단을 만드는 작업인데 습기를 막기 위해 스티로폼으로 꼼꼼히 채우고 막아 마무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달았는데 혼자 힘으로 안되서 여럿이 힘을 모아 달았습니다. 농촌의 시골 교회이기에 대부분의 교회 출신들은 다른 큰 도시로 가서 직장과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명절이 되면 모교회를 찾아와 만나는 사람들과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건축에 힘을 모았던 지난 일을 기억하며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제는 새롭게 교회 건축작업을 했던 이야기 거리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건축이 큰 이야기 소재가 될 것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익숙한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더라도 자주 다녔던 길을 선호하게 되고 익숙한 길로 운전을 합니다. 주방에서 새로운 칼, 잘 드는 칼을 사오더라도 그동안 사용했던 칼, 길이 들었던 칼을 사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연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망치 중에서 내 손에 맞는 익숙한 망치를 사용한다거나 웬지 모르게 자주 사용하는 연장이 있습니다.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보면 잘 찍힌 사진이 아니지만 눈과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진이란 잘 찍힌 사진이 아니더라도 정이 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많이 보면 익숙하고 좋은 사진이 됩니다. 사진을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좋아 집니다. 그 안에 추억이 담긴 이야기꺼리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서일기로 신명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율법을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마와 손에 말씀을 보관하기도 하고 새롭게 들어갈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돌을 쌓고 율법을 기록합니다. 또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합니다. 지명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가르치고 전하여 줍니다.

손을 탄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마음, 애정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되새길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 강한 유대감을 갖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일을 하면서 그 속에 이야기들을 담아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원으로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한주간의 말씀

“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94, 429 / 304

기도 :

성경 : 신명기 25장

제목 : 하나님의 백성이 져야 할 의무

1. 내용: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 (What)

<문단구분>

1~4절 태형에 관한 규례

5~10절 계대 혼인법의 규례

11~16절 남성 신체를 상해한 처벌 규정

17~19절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2.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Why)

1) 태형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 가문의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3) 가장 약할 때 공격한 것은 야비한 일이다.

3. 적용: 믿음의 후사를 위해서 힘쓰자 (How)

1)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시다.

2)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의무를 다하자.

3) 믿음의 후사들을 길러내자

성서일기

약 11개월의 독일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지도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신없이 학교를 다니느라 하루하루를 해치우듯 살고 있다보니 한 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인츠에 있을 때가 엇그제 같기도, 아주 먼 오래 전 같기도 합니다.

새삼 또 시간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들을 때나 러닝을 할 때는 1분 1초가 흐르는 감각이 다 느껴지고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라는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나 정신없이 잠을 잘 때는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멧쟁이에 다니던 나날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저보다 9살 어린 제 사촌동생 시원이가 벌써 내년이면 5학년이랍니다. 시간이 참 속절없이 흐릅니다.

개강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할 일이 많이 없지만, 공부를 하다 지칠 때면 사진첩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약 8만 장의 사진이 있는 제 휴대폰 갤러리는 절반이 유럽에서의 추억입니다. 마인츠, 프라하, 베를린, 이탈리아, 스페인에서의 추억. 그렇게 화면을 내리다 보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저 때의 내가 부럽기도 하면서,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어찌면 긴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8년 전, 저는 멧쟁이가 5학년이었습니다. 5학년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는 아무래도 유럽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그 때는 이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을 텐데, 독일에서 지낼 때 그 도시가 참 좋아서 세 번이나 더 놀러 갔습니다. 지금의 저는 미래에 어떤 도시에 또 방문하게 될까요?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유럽에 또 다시 방문해 몇 년 전에 여길 왔었지 하고 행복한 추억을 되새길 날이 있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런 소중한 기억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제게 아름다운 세상과 보석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래의 제 시간도, 공간도 모두 주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그러나 멋지게 인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제가 기대되고 설렙니다. 아멘!

젊은이사랑방 이에은 청년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6 : 8-11
26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에스겔 37 : 23b

433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누가복음 16 : 1-13
516

“ 영원한 것을 사십시오 ” 정재훈 목사

설교자
새싹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13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임상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슬기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사십시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 일이 밝혀져서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에게 빛진 사람들을 불러서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슬기로운 대처를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 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칭찬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시기 판단과 미래 대비하는 자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준비. 마지막 날에는 재물도 명성도 지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때에는 사람만이 남을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재산을 올바르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를 줄이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평생에 걸쳐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박경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9월에는 많은 나라를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세계문화 만들기 세트로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만들기가 거리가 많아 시간이 나면 하루에 한 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네치아의 가면과 베트남 전통모자 '농'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에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에 다녀왔습니다. 코이카는 전 세계 어려운 곳들을 도와 다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어려운 곳들은 환경문제나 국제사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꾸러기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스크린 벽을 쳐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든다거나 쓰레기 메달들을 분리배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구경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멋진 꾸러기가 되길 바랍니다.

가을의 멋진 변신을 보러 귀락마을에 산책을 갔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벼들이 노랗게 익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쁜 벼도 좋고, 꽃도 좋고, 두꺼비도 좋고 다 좋은 산책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 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 잠언 18장 20, 21절 말씀이 월요일 어린이학교 예배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나 어른이나 '망했다', '짜증나'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쓰고 듣는 사람을 향해서도 의미 없는 비속어나 노여운 말들을 종종 하는데 말의 열매를 먹는 우리가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하기

배움과 가르침

를 힘쓰고 비판하는 말을 삼가자고 하였습니다.

2학기 첫 사랑방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 저녁 9시에 있었습니다. ZOOM 화면을 열고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방공동체학교를 위해서, 교사와 자라나는 공동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TSS '팀워크'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제법 박진감 넘치는 발야구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공을 어떻게 차는지, 차고 나서 어디로 뛰어가야 하는지 많이 헤맸는데 이번에는 양팀이 점수를 내고, 한 팀이 점수를 제법 벌이고, 다른 팀이 따라잡고, 동점이 됐다가, 연장 끝에 한 팀이 승리하는 재밌는 경기를 했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저녁식사를 앞둔 시간, 멋쟁이들이 하나 둘씩 노을을 보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비가 온 뒤의 가을하늘은 각별합니다. 싱송송송해지는 마음과 함께 멋쟁이들은 이번 주도 열심히 보냈습니다. 운동장에 물이 고이면 퍼내는 수고를 더하며 축구공을 차고, 탁구대회를 대비하여 밤낮으로 즐겁게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열린수업에서는 4학년이 중심이 되어 탁구대회를 열었는데, 아슬아슬한 명경기가 많이 나와서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최종 종합우승은 놀랍게도 2학년이 거머쥐었습니다. 많은 멋쟁이들이 열의를 갖고 스포츠에 임하는 모습은, 언제봐도 참 기특하고 멋집니다.

월요일에는 장신대 재학생 3명이 방문하여, 학교를 둘러보고 설명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좋은 배움이 있었길 바랍니다. 5학년은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학년들도 수시 일정을 계속 진행하느라 몸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학부모 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롭고 뜻깊은 모임이 되길 기대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엄마 없는 아침

9월 어느 주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다. 우리 집. 나를 제외한 유일한 아침형 인간인 엄마가 없으니, 아침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다.

오랜만에 미국식 오믈렛을 해먹는다. 미세스 김이 생각나는 맛이다. 아빠를 깨우려니 너무 잘 주무시기에 두고, 아영이를 깨우려니 짜증 낼 것이 분명해 내버려두었다. 나 혼자 맛있는 아침을 폭식했다. 본디 집에서 식사 중 영상 시청은 금지지만 나 혼자 먹는 식사에 불법을 더 하니 맛이 일품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쫄딱 젖은 채 현관으로 들어온다. (나는 그 날 엄마가 입은 티셔츠가 빨강이라고 기억했는데, 엄마가 오늘이 빨강이고 그날은 파랑이란다. 도대체 며칠 동안 고추를 탄 걸까.)

축축하게 들어와서는 혹시 몰라 내 아침식사에 곁들이지 않았던 치즈 롤빵을 들고 유유히 현관 밖으로 사라진다. 역시 나의 기막힌 축은 틀릴 일이 없다. (사실 엄마가 냉장고에 있던 망고주스가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살짝 뜨끔했다.)

아무래도 정태일 목사님께서 말하신 결실의 계절이 온 듯하다. 항상 이 기간이 되면 엄마는 매일 아침 사라진다. 분명히 어제 비가 밤새 내리고 아침에도 오는데, 엄마는 없다.

하지만 엄마 이름이 적힌 큰 빨강 우산은 그대로이다. 이상하다.

나는 비가 내리면 점심까지 쭉 자게 되는데 엄마랑 다른 분들은 아닌가 보다. 분명히 오늘은 7시에 일어나 일찍 일어난 내가 뿌듯했는데, 기분이 변했다. 우리 생활공동체에서 살면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 다른 분들보다는 항상 늦다.

뭔가 아침부터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하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섬김은 뭔가 힘든 것 같다. 나는 맛있는 오믈렛을 먹을 뿐이다.

푸른꿈사랑방 정아인 학생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391장, 549장

성 경 : 예레미야 18장 1 - 11절

말 씬 :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가자시티 완전장악을 위한 지상 작전 돌입을 전격 선언한 이스라엘이 16일부터 대규모 화력 동원하여 가자시티에 개전 후 최고 강도로 폭격했다. 이스라엘 추산 거주민 약100만명 가운데 1차 37만명, 2차 22만명이 대피하고 피난민 4만 8천명이 발행하고 58명이 숨졌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떼제 공동체>

유럽과 다른 대륙에서 온 수만명의 젊은이 맞이하며, 일주일 동안 성경모임과 기도회 참여하여 기도와 공동체 생활 경험하고 성경적 성찰과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해외공동체 탐방 중인 5학년들을 위해

2) 아픈 사람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화요일 8, 9월에 생일인 공동식구들을 축하하는 모임으로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먼~ 이야기도 나누고, 해외로 나간 자녀의 근황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식구들의 소식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위로의 마음도 전하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식구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